

KDI FOCUS

KDI FOCUS

2014년 3월 4일(통권 제37호)

자료문의 | KDI 홍보팀

주소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길재길 15

Tel 044-550-4030

Fax 044-550-0652

집필자 | 이 석 연구위원(044-550-4207)

KDI FOCUS는 시의성 있는 경제·사회적 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한 시론 성격의 자료

Korea's Leading Think Tank

www.kdi.re.kr

5·24 조치, 장성택의 처형 그리고 북한경제의 딜레마

이 석 | KDI 연구위원

“ 5·24 조치에 따른 북한의 대중국 자원수출의 증대는 급기야 장성택 처형의 한 가지 빌미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개선이 없는 한 북한경제는 앞으로도 대중국 자원수출의 확대와 경제 의존성 심화, 그에 따른 개혁·개방의 딜레마로부터 빠져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

I. 머리말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북한을 바라보는 외부관찰자라면 누구나 지금 이러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장성택의 처형에서부터 올해 초 김정은의 남북관계 개선의지 표명과 이산가족 상봉 합의 등 평화공세에 이르기까지 최근 북한이 보이는 행보는 통상적인 외부관찰자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은 2014년 북한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 질문과 관련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조금 엉뚱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지난 몇 년간의 북한경제, 특히 북한의 대외무역 추세를 관찰한다. 물론 최근 북한의 행보는 모두 정치적인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정치적 행보가 경제적 요인, 특히 대외경제

관계를 일종의 제약요건으로 해서 전개된 것 역시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는 정치와는 달리 외부관찰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데이터에게 말을 시켜 본다면, 그 결과는 비록 현재의 북한을 직접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이처럼 2014년 현재의 북한과 관련한 데이터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다.

Ⅱ. 2010년 5·24 조치와 북한 대외무역의 변화

2000년대 들어 북한경제가 급속한 대외무역의 확대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00~10년 동안 북한의 대외무역은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그 결과 북한경제는 1990년대 중후반의 기근과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 상대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대외무역은 한국과 중국이라는 단 두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다. 2005년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북중무역이 40~57%, 그리고 남북교역이 30~35%를 차지함으로써 이 둘을 합치면 전체 북한무역의 최대 90%에 육박할 정도였던 것이다.

더욱이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은 상호 보완적으로 매우 잘 구조화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체제 유지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자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기 때문에 북중무역에서 항상적인 무역적자

에 직면하였다. 반면, 남북교역에 있어서는 모래와 같은 자연 채취물과 각종 농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꾸준한 실질교역흑자를 기록하였다.¹⁾ 동시에 북한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과 같은 남북경협을 통해서도 상당한 경화를 확보하였다.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와 대한민국 무역흑자 및 경화의 수입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뜻이다. 또한 북한은 매년 한국으로부터 식량과 비료를 지원받았으며, 중국으로부터는 석유와 같은 에너지를 지원받았다. 한국으로부터 유입된 경화를 유통하는 경로 역시 주로 중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면 200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을 양분했던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은 상업적인 무역과 원조, 그리고 경화의 유통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보완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역구조는 2010년 한국의 5·24 조치로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된다.²⁾ 그간의 북한 무역을 지탱해 오던 남북교역이 이 조치를 계기로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은 5·24 조치에 직면하여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고자 시도하였다. 남북교역 및 한국으로부터의 경화수입 중단을 대중국 수출 확대 및 이를 통한 중국에서의 추가적인 경화수입 확보로 대체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 수출의 증대는 결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표 1〉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우리는 5·24 조치 이후 기준에 북한이 한국으로 수출하던 제품 가운데 어느 정도가 중국으로 대체 수출되었는지를 계

200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은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이

상호 보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특징을 보유

1) 2000년대 중후반까지 남북교역은 총량규모 면에서 (한국에서 북한으로의) 반출이 (북한에서 한국으로의) 반입보다 더욱 컸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한국의 대북지원과 같은 비상업적 교역에 따른 것이다. 또한 남북교역 중 상업적 교역,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교역에 따른 실질적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무역에서는 북한이 항상적인 흑자를 기록하였다. 본문의 실질교역흑자는 이러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에 있어서의 북한의 교역흑자를 의미한다.

2) '5·24 조치'란 2010년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및 대북 신규투자 등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한 것을 의미한다.

〈표 1〉 북한의 대한민국 수출의 대중국 수출로의 대체금액
(2010.7~2012.12)

(단위: 천달러)

	2009년 대비 대한 수출 감소액 (A)	2009년 대비 대중 수출 증가액 (B)	대한 수출의 대중 수출로의 대체 (C)	(C)/(A)	(C)/(B)
월평균	37,831	126,873	13,367	35.33%	10.54%
연평균	453,975	1,522,480	160,404	35.33%	10.54%

주: 대한민국 수출의 경우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을 통한 수출액만을 포함.
자료: 이석(2013), p.61의 〈표 4-2A〉 및 p.68의 〈표 4-8A〉.

산하였다(남북교역은 일반교역과 위탁가공만을 고려). 그리고 이를 위해 2009년을 기준으로 이후의 남북교역 및 북중무역을 HS 6단위의 구체적 상품 수준으로 일일이 분해하여 이들 각각의 상품들에 대한 북한의 대한민국 및 대중국 수출의 변화를 대조하였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5·24 조치 이후 기존 북한의 대한민국 수출 가운데 약 35%만이 대중국 수출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2009년 북한은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을 통해 한국에 월평균 4,160만달러를 수출하였는데, 5·24 조치 이후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수출액은 월평균 377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5·24 조치로 북한의 대한민국 수출이 월평균 3,783만달러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중 중국으로 (순)대체 수출된 금액은 월평균 1,337만달러로 전체 감소량의 1/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하다. 그간 북한이 한국에 수출했던 상품들은 주로 모래와 같은 자연 채취물이나 농산물 등이었는데, 이들 상품들은 중국이 수입하기 힘들거나 오히려 수출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기간 중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009년에 비해 무려 월평균 1억 2,687만달러나 증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같은 기간 중의 대한민국 수출 감소액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물론

〈표 2〉 5·24 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 수출 상위 5개 품목별 기여도(2010~12년)

(단위: 달러, %)

HS 코드	2009년 대중 수출	2010~12년 대중 수출 (연평균)	5·24 조치 이후 대중 수출 증가액 (연평균)	5·24 조치 이후 대중 수출 증가액 의 상품별 기여도
	(A)	(B)	(C) = (B) - (A)	(D)
전체	793,025,950	2,050,655,026	1,257,629,076	100.00%
270111 (무연탄)	256,186,105	900,943,691	644,757,586	51.27%
260111 (철광석)	93,949,734	249,905,085	155,955,351	12.40%
620193 (남성외투)	11,788,088	56,152,190	44,364,102	3.53%
720110 (선철)	36,909,477	82,628,137	45,718,660	3.64%
620293 (여성외투)	13,173,674	39,163,846	25,990,172	2.07%

자료: 이석(2013), p.41의 〈표 3-6〉.

이러한 증가액의 89%에 해당하는 1억 1,351만달러는 기존의 대한민국 수출과는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대중국 수출 증가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5·24 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 증대는 사실상 무연탄과 철광석이라는 단 두 가지 품목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이들 두 가지 품목의 대중국 수출은 2010~12년 동안 2009년 대비 연평균 세 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의 전체 대중국 수출 증가액의 무려 64%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2010년 이후 북한은 기존에 한국에 수출하던 상품들을 중국으로 대체 수출하려 노력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여의치 않았고, 이로 인해 무연탄과 철광석이라는 두 가지 상품을 정책적으로 중국에 확대 수출하는 방식으로 5·24 조치의 부정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연탄과 철광석이 북한의 내부 경제를 떠받치는 전략물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무연탄은 북한 에너지 공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 물자이고, 철광석 역시

**5·24 조치로 기존 북한의
대의무역구조는 해체되고,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 등
대중 자원수출 확대를 도모**

**무연탄과 철광석은
북한 에너지 공급과
산업생산의 기본 물자로,
이의 수출 확대는
그 자체가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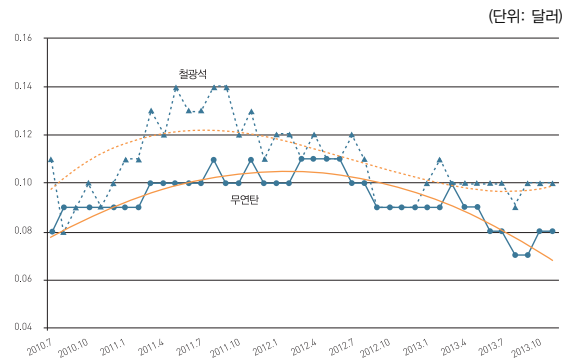
북한의 기간산업을 가동시키는 기본 물자이다. 이러한 이유로 2009년 북한은 김정일의 지시로 무연탄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는 조치를 실시한 바도 있다. 따라서 5·24 조치에 따른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및 철광석의 수출 증대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한 북한 내부의 에너지 공급 및 공업부문의 생산차질이 언제나 북한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북한의 대중국 자원수출 여건의 악화와 2013년 장성택의 처형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무연탄과 철광석의 수출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져 왔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5·24 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및 철광석의 수출가격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1]을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단가는 5·24 조치 직후에는 잠시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후 2012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무연탄 수출가격이 수출규모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악화되어 왔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은 철광석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실제로 철광석의 수출단가는 2011년 중후반을 기점으로 분명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이후 중국의 성장률이 정체하면서 이들 상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들의 국제가격 역시 상승세를 타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5·24 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국 전략물자의 수출여건이 점점 더 악화되어 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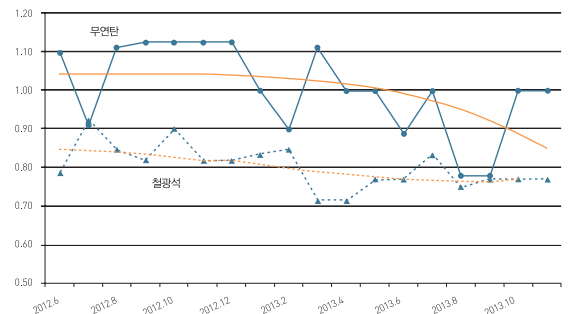
**2012년을 기점으로
무연탄·철광석의
대중 수출가격 하락과
수출여건 악화로
북한경제의 고통은 배가**

[그림 1]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및 철광석 수출단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stat.kita.net/top/state/main.jsp?lang_gbn=null&statid=cts,
접속일자: 2014. 1. 20)

[그림 2]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및 철광석 수출단가/
중국의 평균 수입단가의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stat.kita.net/top/state/main.jsp?lang_gbn=null&statid=cts,
접속일자: 2014. 1. 20)

다는 사실만큼은 매우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 2]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및 철광석 수출가격을 동종 상품에 대한 중국의 (세계 전체로부터의) 평균 수입가격으로 나눈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값의 추세는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및 철광석 수출단가의 추이와 유사하다. 실제로 이 값은 2012년 후반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및 철광석 수출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가격의 하락속도가 동종 상품에 대한 중국의 평균적인 수입가격의 하락속도보다 더욱 빨랐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및 철광석의 수출여건이 동일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여타 국가의 수출여건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북한경제로서는 이러한 수출여건의 악화가 두 가지 측면에서 고통이 되었을 것이다. 우선 북한으로서는 동일한 경화수입을 올리기 위해 이제까지보다 더욱더 많은 무연탄과 철광석의 물량을 중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이러한 수출이 북한경제 내부에 미치는 부작용 역시 그만큼 커지는 부담을 감내해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및 철광석의 수출단가가 하락하는 2012년 이후 동 제품의 수출 가격과 물량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상품의 수출단가가 하락할수록 일정 금액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 오히려 수출물량은 더욱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으로서는 이들 무연탄 및 철광석과 같은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한 대중국 교섭력의 악화를 감내해야 했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들 제품의 북한 수출가격이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빠르게 하락하는 경향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5·24 조치에 따른 경화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무연탄과 철광석을 더욱 많이 내다 팔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구매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북한의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이 증가해야 할수록 그에 대한 대중 교섭력 역시 감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2013년 말 단행된 장성택의 처형은 이러한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미 널리 알

려진 것처럼 장성택은 그간 중국과 북한의 협력을 총괄하던 인물이었고, 이로 인해 북중무역을 비롯한 양국의 경제협력을 주도하던 인물이었다. 물론 장성택의 처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단행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당국이 장성택의 처형 죄목의 하나로 ‘지하자원과 토지를 외국에 헐값으로 팔아먹은 매국행위’를 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장성택의 실제 처형 원인이 무엇이었든 우리가 앞서 언급한 ‘5·24 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 확대가 가져오는 경제적 고통’을 북한당국이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급기야 경제문제를 넘어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권력투쟁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지난 몇 년간의 북한경제 추세가 현재 북한의 정치적 움직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뜻이다.

IV. 장성택 처형 이후 2014년 북한경제의 딜레마

그렇다면 장성택의 처형 이후 북한은 앞서 우리가 언급한 경제적인 문제들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장성택의 처형은 매우 역설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 경제 및 정치에서의 대중 의존성 심화라는 딜레마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태로 중국의 경제주체들은 응당 북한경제의 위협성을 되돌아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북중무역과 경제협력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대중 자원수출의 문제는
급기야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먹은 매국행위' 라는
장성택 처형의 빌미로 작용**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경제에서는
대중 자원수출의 딜레마와
대중 경제 의존성의 심화,
그리고 개혁·개방을 둘러싼
내부 통제의 딜레마 등이
더욱 선명히 부각될 전망**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북한경제로서는 북중무역과 경제협력에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감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으로서는 장성택의 처형 이후 북한경제를 보다 순조롭게 운영하기 위해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아니 이제까지보다 더욱 친중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북한이 꺼리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의 북중무역 추세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장성택 처형 이후 오히려 경제의 대중 의존성 심화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딜레마를 더욱 실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또한 앞으로의 북한경제는 대중국 자원수출의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2012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자원수출 여건은 점차 악화되어 왔고, 급기야는 이것이 장성택의 처형이라는 정치적 사건의 명분으로 이용되었다. 그렇다면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대중국 자원수출은 어떻게 될까? 물론 북한은 우선 이들 자원의 수출 여건 개선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성공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북한의 자원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에서 북한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이들 북한의 자원수출 여건 개선 시도를 중국 측이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은 이에 수출물량 축소로 대응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쉬운 선택이 아니다. 이 경우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경제의 규모가 축소되어 북한 당국 및 북한경제가 곧바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대중국 자원수출을 책임진 경제주체들 역시 장성택의 처형을 몰고 온 것과 동일한 경제적 죄목을 언제나 염두에 두면서 중국과의 거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당국으로서는 경제의 개혁 및 개방과 관련해서도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현재의 북한이 중국에 대한 대규모 자원수출 이외에 추가적인 경화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북한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당국으로 환류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상품무역 이외의 여타 방식으로 해외와의 경제적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다. 북한당국이 중국에서 휴대폰을 대당 100달러 내외에서 수입하여 주민들에게 200~300달러로 판매함으로써 그에 따른 지대를 획득하는 것이 전자의 사례라고 한다면, 북한의 노동력을 중국에 송출하여 임금을 수취하는 것이 후자의 사례이다. 그런데 전자는 시장의 확대를 전제로 하는 개혁을, 그리고 후자는 북한과 해외의 경제주체들 사이의 접촉면 확대를 전제로 하는 개방과 각각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과 개방은 기존의 사회주의 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으로서는 언제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난 몇 년간의 경제 추세가 보여주듯이 북한으로서는 대중국 자원수출이 고통스러울수록 이러한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화 획득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북한당국이 경화의 확보라는 경제적 유인과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는 정치적 위험성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지속적인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V. 결론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5·24 조치 이후 북한 경제는 무연탄과 철광석 같은 대중국 자원수출의 확대를 통해 남북교역의 중단에 따른 부정적 과급 효과를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무연탄과 철광석 같은 자원은 북한의 내부경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략물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자원 수출의 확대는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더욱이 2012년 이후 이들 자원의 대중 수출가격이 하락하고 수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들의 수출 확대에 따른 고통은 더욱 배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장성택의 처형 죄목의 하나로 이들 자원을 헐값에 외국에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데에 이르렀다. 5·24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고통이 급기야 북한 내부의 정치적 투쟁수단으로까지 활용된 것이다. 그런데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이러한 북한경제의 고통은 사라지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북중무역을 통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라는 북한당국의 딜레마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은 물론, 대중 자원수출의 딜레마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연관된 경제의 개혁 및 개방을 둘러싼 딜레마 역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2014년 올해의 북한에게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개선하려는 유인이 더욱 클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현재 북한경제가 직면한 고통과 딜레마는 결국 남북교역의 전면적 중단으로부터 초래된 것이고,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남북교역을 재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유인을 갖는다고 해서 북한의 실제 행동이 반드시 우리에게 우호적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북한은 스스로가 곤란한 처지에 놓일수록 한국에 유화적이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을 위협하고 굴복시켜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 하는데 매우 능수능란하기 때문이다.

물론 올해 북한이 남북관계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현재와 같이 북한의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산적한 때일수록,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긍정적인 관계개선의 계기를 모색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더불어 북한의 예기치 못한 정치·군사적 공세의 가능성에도 충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

참고문헌

- 이 석, 『5·24 조치 이후 남북교역 및 북중무역의 변화 분석』, 정책연구시리즈 2013-02, 한국개발연구원, 2013.
- 한국무역협회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stat.kita.net/top/state/main.jsp?lang_gbn=null&static=cts, 접속일자: 2014. 1. 20)